



유로지역, 2/4분기 경제성장률 저조

이정환 선임연구원

■ 유로지역 2/4분기 경제성장률이 부채 위기 확산으로 전분기에 비해 크게 둔화됨에 따라 유럽지역의 더 불뎃 우려가 커짐.

- EU의 유럽통계청은 8월 16일 유로지역(17개 회원국) 2/4분기 실질GDP 성장률이 전분기의 0.8%보다 0.6%p 하락한 0.2%를 기록했다고 밝힘.
- 이는 유로지역이 2009년 하반기 경기후퇴에서 벗어난 뒤 가장 저조한 실적임.
- 금번 2/4분기 유로지역 경제성장률은 블룸버그의 전문가 대상 사전집계 전망치(0.3%)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남.

■ 유로지역의 성장률 저하는 유로지역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성장 둔화에서 비롯됨.

- 독일의 2/4분기 성장률은 1/4분기 1.3%에서 크게 후퇴한 0.1%를 기록함.
- 이와 같은 경제성장 둔화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보다 심각한 것으로 유럽중앙은행(ECB)의 두 차례(3월과 7월) 기준금리 인상¹⁾이 적절하지 못했다²⁾는 비판이 제기됨.
- 2/4분기 중 순수출, 민간소비, 건설투자가 크게 둔화 또는 감소하여 성장에 걸림돌이 됨.
- 독일 경제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좋으며 주문 잔고 물량이 크기 때문에 급격한 성장률 저하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 반면, 일각(Munich Re)에서는 독일의 고성장이 저성장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주장도 제기됨.

■ 독일과 함께 유로지역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프랑스 역시 2/4분기 실질GDP 성장률이 전분기대비 0.0%를 기록하면서 유로지역 경제성장 둔화를 부추김.

1) ECB는 인플레이션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2011년 4월에 1%에서 1.25%로, 7월에 1.50%로 인상함.

2) ECB는 2008년 유로지역 경제가 침체기로 진입하기 직전 기준금리를 인상한 경험이 있음.

- 프랑스 경제가 1/4분기에 전분기대비 0.9% 성장한 후, 2/4분기에는 0.3%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0% 성장에 그침.
- 글로벌 수출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, 하반기부터 이탈리아, 스페인, 포르투갈, 아일랜드, 그리스 등 재정위기 국가들의 정부지출 대폭 삭감이 예정되어 있어 유로경제의 경기후퇴 가능성이 높아짐.
- 유럽의 수출(계절조정)은 2011년 1/4분기 동안 전분기대비 1.5% 증가했으나, 2/4분기에는 4.7% 감소하였으며, 같은 기간 동안 무역적자는 8억 유로에서 16억 유로로 확대됨.
 - Royal Bank of Scotland는 수출 감소로 인해 2011년 유로지역 성장 전망치를 종전의 1.6%에서 1.1%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힘.
- ING 은행은 유로지역 경제가 하반기에 사실상 침체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세계경제의 경기침체 리스크가 증가했다고 발표함.

(Wall Street Journal, Bloomberg 8/16, 8/17)